metro
메트로 2014년 4월 4일 금요일
Los Angeles
DODGERS
MLB
BASE
VS
수지와 함께하는
GO! LA 원정대!
MLB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다운로드 받으면,
수지와 함께! LA현지에서!
다저스 경기를 관전할 수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MLB APP DOWNLOAD
본 프로모션은 미국관광청과
MLB가 함께합니다
USA
MLB

박근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촌부 이교부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 일촉즉발의 한반도 운명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여연 70년이 되도록 남과 북이 분단되어 살고 있으나 그 어떤 누구도 통일을 못하고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최첨단 무기와 가공할 핵으로 무장하고 상호 대치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고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남한은 북한이 도발의 징후만 보이면 선제공격하여 북한을 괴멸시킨다고 호언장담하고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남북 대담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원조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미국과 적대적 관계 속에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에게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맹독을 가진 전갈에게 "독침을 빼놓으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에게는 이 말이 죽든지 좋아 되란 말로 들릴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미국과의 지리멸렬한 협상은 않겠다고 하면서, 3년 내에 평화적인 협상에 재지 못하면 무력으로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하고, 조국통일을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4자 또는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통일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리로는 결코 평화 협상이나 상호간 교류도 않겠다는 것이며, 오직 시간만 끌어서 북한을 고사 시키든지, 아니면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켜 북한정권이 붕괴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북한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양을 중심으로 특히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교부가 진단할 때 향후 3년 내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 끝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남한 단독정부는 박근혜대통령으로 끝이 나고 다음 대통령선거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한 채, 한반도의 통일문제의 초석을 놓지 못하면, 우리민족은 세계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남과 북 우리민족의 모두의 운명입니다

2. 전쟁을 피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해결책

이제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해서도 안됩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전쟁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족 간에 화해와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끝이 납니다
그동안 남과 북을 통일 해보겠다고 남한의 주요 인사들인 여러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들이 모두 동원 되었으나 오히려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기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과 같은 위급한 시기에 그 어떤 누구도 이를 해결할 인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준비되어 나타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릅뜬 두 눈으로 조용히 응시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교부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들과 대통령에게 이 상소문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난제를 이교부가 해결해 내겠습니다
이교부는 가공할 재앙을 옆고 올 테이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라면서 일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남과 북 어디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교부가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교부는 지금까지 70이 생애동안 어느 당파나 정치에 관여게 본적이 없으며, 종교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평생을 누구 한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원수가 없으며, 세상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재에나 권세, 돈에 욕심을 낸 적이 없고, 오직 이 날까지 조국의 평화와 통일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제물이 되어 이 목숨 조국에 바쳐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거지, 정신병자, 갈 곳 없는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거느리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진실과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직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갈 곳 없는 자를 부모 형제로 모시며 이름 없이 살고 있는 이교부가 지식으로도, 배으로도, 선의 이름으로도, 종교로도 못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자라고 생각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전적 도움은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교부가 그동안 준비한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교부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달라는 것만이 저의 간청입니다.**
저의 해결책을 박근혜 대통령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자기가 신을 받고, 꿈꾸고, 계시 받아 나왔다면서 책임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부는 내가 한 모든 말에 전적인 책임을 지겠으며 이 일을 못해내면 내 목을 분신이라도 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코웃음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도 제가 한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1)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의 길목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통일의 열망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원한을 사고, 결국 조국에 등 돌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통일의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전임 위정자들의 잘못된 과오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에 나가 못 들어오는 동포들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박대통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2) **이석기 의원도 석방하십시오.** R O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종북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사회가 수용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워 구속시킵니까?
그를 풀어 주면 우리 사람이 되나, 버리면 한사람을 넘어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창설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소한 일을 감수하지 못하면 큰일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난파는 심지보겠다는 사람이 하루살이를 못 삼킨다면 말이 안됩니다.
부디 민족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셔야합니다
이제껏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듯이 결코 전쟁은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1/3이상이 파괴되면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못한 비참한 일이 올 니다
3) **남한 민족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 당파, 학연 등이 자리잡고, 사회에 빈부양극화가 만연해 있으면 우리 안에서 통일이 되기도 전에 먼저 망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4) 남한 정부는 정부수립 60여년 동안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외세문화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정작 우리 것은 설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다시 되살려내야 합니다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인내천사상,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명예은 없고,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작 사회에는 어른이 없고 윤리, 방방절도, 살인이 하루가 멀다고 있어나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이 살 수없는 세상이 되어 얼마 전 세 모녀가 창피한 방에서 유서 한 장 남기고 쓸쓸히 죽어갔던 상황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있어서 남의 것을 훔친 도적보다 있고도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더 도적인지 모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다 먹지도 못하고 죽을 제 가지고도 못갈 것이니 이웃을 가슴에 담고 품을 수 있도록, 모두 화해의 장을 만드시는 일에 힘써주십시오

앞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년 기간은 우리민족에게 예비기간입니다
전쟁이나, 평화통일이나는 3년 동안 이 민족하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교부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전쟁으로 남북이 통일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간곡히 충언하고자 합니다.

왜 이 나라에서 돌아가지 않고 누구와 싸우려고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 때문이라면 무기를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민족끼리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협력을 맺고 우방이 될 것 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원 악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교부의 묘안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정녕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면 지금 미국이 얻고 있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얻을 것입니다
평화와 협상만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교부는 결코 반미, 친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릇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실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위에서 단편적으로 말한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핵심적인 대안으로 이교부의 통일론이며 이교부식 통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누구든 과거 어떠한 도적, 강도, 살인자, 기생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동참하면 과거의 허물을 개의치 않고 우리의 부모형제 자매가 될 것이요, 새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 하겠다면 모두 일어나 누구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익산으로 오십시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outube(유투브)/ "이교부의 마지막 경고" 라는 제목으로 관련 동영상물이 있습니다.

주현교부 - 전북 익산시 주현로 14길 6 (구주소 : 전북 익산시 주현동 174-4)
카페 http://cafe.daum.net/leegyobu 전화번호 : 063) 841-9625

진해 군항제 10일까지 손짓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4일 금요일

국내스타 할리우드 출연 러시

직장인 생존전략 자기계발 진화

직장인들의 자기 계발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생존 전략이 됐다. 외국어 능력과 전문 자격증만이 경쟁력이라던 시대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요즘 직장인들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 독특한 경쟁력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컬러 스타일링, 트렌드 리딩력, 탬버린 댄스 외에도 비주얼 싱킹 워크숍, 타로카드 배우기 등 이색 강좌를 찾아다니며 신선한 무기로 승부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색 강좌 타로카드까지

내심산업이 운영하는 다큐브시티 1~층에 위치한 나큐브아카데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신도림 환승역과 연결돼 있어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많이 찾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비주얼 싱킹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 자신만의 스타일링, 휴먼 네트워킹, 나만의 히든카드 타로카드 배우기 등 이색 자기 계발 강좌를 신설해 인기를 끌고 있다. 총

외국어·자격증은 기본 '신상품' 무장하기
3~10년차 탬버린댄스·타로카드 등 다양

50여 개 강좌 중 절반 이상이 일반 취미 강좌가 아닌 자기 계발 강의로 구성됐다. 당초 1개 강좌당 10~15명을 정원으로 기획하면서도 수강생이 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을 열고 보니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신청해 거뜬히 이를 채웠다고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한 강좌 가운데 인사 업무를 배울 수 있는 'HRD 실무마스터과정'과 각종 도표 등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구성하는 '실무자를 위한 인포그래픽스' 등 실전 업무에 도움을 주는 당일 수강 전문 강좌에는 월차를 내고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는 직장인이 80%에 달했다.

또 실무자에서 리더로 도약해야 하는 10년차 직장인들을 위한 리더십과 처세술 교육인 '응답하라! 10년차 직장인'과 국내 1호 라이프 컬러 컨설턴트를 통해 배우는 '셀프 스타일링 노하우',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 찾기' 강좌도 인기라고 한다.

◆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연 문화 콘텐츠 기업 마이크임팩트 스쿨은 직장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맨으로 인정받기 위한 트렌드 리딩력 강좌를 개설했다. 3일에 열리는 '트렌드지수 TQ를 높여라' 강좌에선 트렌드를 읽는 능력인 TQ(Trend Quotient)를 높이는 방법과 트렌드 리더가 갖춰야 할 업무 스킬에 대한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수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유능 사원 탬버린 댄스도 잘 춘다

회식 자리에서 흥겹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능력'이 된 지 어미 오래다. 근무 시간 내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식 자리에서 꿀 먹은 벙어리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오피스 밀집 지역에 위치한 댄스아카데미가 붐비고 있다. 일부 학원에선 직위에 맞춘 곡 선정과 이에 활용한 탬버린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배울 수 있어서 취미 생활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힐링 위한 '인문학 강의'도 눈길

퇴근길 직장인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도 인기다. 수림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인문학 강좌 '공명(共鳴)'은 현대인의 '욕망'과 '불안' 선택을 주제로, 욕망에서 파생하는 불안으로 고민하는 현대인이 어떻게 하면 불안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다. 강사진은 국내 인문 분야의 유명 저자들로 구성됐다.

다큐브아카데미 교육기획팀 이승기 주임은 "이전에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및 스피치 향상 등을 위한 단순 직장인 강좌가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직장에서 자신을 다방면으로 개성 있게 알릴 수 있는 비법 강좌는 물론 자기 해당 분야의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3년에서 10년차 경력의 직장인들이 이색적인 자기계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정민기자 [illegible]

지하철 잇단 사고 시민 혼란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이상 열차가 잇따르는 사고가 일어난 3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서울역 환승통로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위).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도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서울·베이징市 대기 질 공동대응 합의

오염방지위해 기술·정보 교류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베이징시 초청으로 3일 베이징을 방문, 왕안순 베이징시장과 합의문에 서명하고 "양 도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상시 교류해 동북아 대기 질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양 도시 정책 기술·정보 인적 교류와 협력,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 환경팀 신설, 서울·베이징이 주도하는 동북아 대기 질 개선 포럼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위원회는 지난해 4월 박 시장과 왕 시장이 만나고 나서 설치된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두 도시 실무진은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공공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녹스 버너 보급, 도로분진 흡입차량 시범 운행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대기 질 개선 포럼은 올 9월 서울에서 열린다.

왕 시장은 "베이징시에서 1998년부터 연이어 6단계 대기오염 방지 조치를 내놨지만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사용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올해 1300억 위안(약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5%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선문기자 [illegible]

대화하는 주한 미·일 대사 성김 주한미국대사와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갤러리 레이안 갤러리에서 주한외교사절 부인 모임인 '가든클럽' 주최로 열린 꽃꽂이 전시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파주 추락 무인기 사진 193장 촬영

백령도는 황해도 온천비행장서 출격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는 북한 황해남도 온천 비행장에서 출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했는데 카메라와 0.9㎓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었다"며 "카메라에는 193장의 사진이 담겼고, 송수신장치는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쉽조도 최초 설 때 기본 사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판정되면 당연히 이것은 영공 침해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나 군 당국이 쉬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겉으로 심증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만약 폭탄이라도 실려 (청와대에) 폭 테러를 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다"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 온천비행장 상공에서부터 비행을 시작해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무인항공기는 고도 3㎞ 이상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백령도 쪽으로 날아왔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프로야구 '입담 중계' 경쟁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프로야구 '해설 전쟁'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프로야구 중계를 향한 야구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700만 관중 시대를 맞으면서 남녀 구분 없이 야구를 즐기게 됐고, 관심 분야도 다양해졌다. 덕분에 개성 넘치는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해설위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각 구단의 특징과 훈련 방식, 야구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해설위원의 중계를 찾아보는 팬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 시즌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온 해설위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동작구 해설로 "모두까기"라는 별명을 얻은 이순철 해설위원과 거침 있는 입담으로 수많은 야구 팬들의 지지를 받았던 차명석 전 LG 코치가 돌아왔다. 여기에 왕년의 스타 최원호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 진필중도 새롭게 마이크를 잡으며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들의 높아진 관심 못지않게 해설위원의 중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프로야구 개막 2연전 이후 한 방송사는 해설위원의 중계를 문제 삼는 팬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팀 경기 중계에서 제외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해설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없지만 팬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한 해설위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제주 4·3 영령에 헌화하는 여야 대표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부터)가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청와대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 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문고 배너를 클릭하면 글쓰기 창이 나오고 여기에 규제 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는 한편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글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 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 & 뉴스

6·4 지방선거 개표 사무원 모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개표 사무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일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 접수를 받는다. 근무 시간은 선거일인 6월4일부터 다음날 개표 종료 시까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방식 결정

●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경선 방식으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등 4가지 방식을 권역별로 '맞춤 적용' 하기로 3일 결정했다.

4가지 방식은 ▲공론조사 50%+여론조사 50% ▲공론조사 100%(현장투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 ▲여론조사 100% 등이다.

오바마 25일 1박2일 방한 확정

일본은 2박3일 국빈 자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예정대로 한국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 방문은 정부 요청에 따라 2박3일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방한 기간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태세 유지와 북핵 비핵화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차례로 찾는다.

/조선미기자 seonmi@

경기도지사 경선 2명 압축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회동을 갖고 경선후보를 2배수로 압축해줄 것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회동을 한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경선이 경기 도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남경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가운데 다른 세 후보는 1명으로 압축해 '양자 구도'로 경선을 치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신분증에 도로명스티커 부착

서울시 강동구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시행하고 성과를 파악해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서울시 동대문구는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심 속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영등포, 발달장애인 5명 채용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해 2년간 5명씩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14명의 신청자 중 3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친 5명을 최종 선발했다.

벚꽃 축제 개막일 '봄비'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린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윤중로) 벚꽃길에서 우산을 쓴 상춘객들이 벚꽃잎이 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 경인운하 공사도 '짬짜미'

입찰담합 11개사에 과징금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 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대부분은 앞 들어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를 짬짜미한 혐의로도 걸린 바 있어 건설업계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인운하 사업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건설 149억5000만원 ▲대림산업 149억5000만원 ▲현대건설 133억9000만원 ▲삼성물산 84억7000만원 ▲현대엠코 75억3000만원 ▲GS건설 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 62억원 ▲동아산업개발 54억7000만원 ▲동부건설 24억8000만원 ▲한라 21억20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초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 사업이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이들 6개 대형 건설사 영업부장 및 토목 담당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6개 대형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 모여 입찰 담합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 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다눠 가졌다. 당초 4개 공구가 아닌 5개 공구를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후 SK건설이 변심해 제6공구에 3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다.

이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만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박선옥기자 mss8120@metroseoul.co.kr

경찰 사기대출 관련 금감원 수색

경찰이 사기대출을 저지른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금감원 김모(50) 팀장의 e메일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여의도 금감원 전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금감원 전산부를 압수수색해 김모 팀장이 사용한 컴퓨터 e메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1월 29일 중앙티앤씨 서정기(44·구속) 대표 등 협력업체 대표들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에는 직접 만나서 사건과 관련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내용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

"성년자녀 동의없는 성전환 안된다"

인천지법 성별 정정신청 기각

인천지법 가사5단독이 3일 트랜스젠더 A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유부남 A씨는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고 부인과 갈등 끝에 이혼했다. 재산을 다 줄 테니 어린 아들을 맡아 달라고 부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 B씨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가슴이 생기고 성기가 없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10년쯤 지나고 B씨 어머니는 방치된 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세 사람은 각자 삶을 찾은 듯했지만 A씨가 성년이 된 B씨에게 서류 한 장을 보낸 뒤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성별 정정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법원이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기 때문이다.

B씨는 "아버지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잤다. 여자로 변하는 아버지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또 아버지 성별이 바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결국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은 기각됐다.

/조현정기자 mkamel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마틴 루터 킹 목사 피살

1968년 4월 4일 미국 흑인민권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파업 청소원 파업 지원차 방문했던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모텔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쓰러졌다. 39세의 킹 목사는 한 시간 뒤 절명했다. 극우파 백인인 범살자 제임스 얼 레이는 9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98년에 죽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는 계곡의 뒤덮인 관점에서 인종차별의 종식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비폭력운동을 선언했던 킹 목사는 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내일은 식목일 식목일을 이틀 앞둔 3일 충남도교육청 직원들이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의 한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성남 정자동에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일 오후 3시 이시형 이사장을 비롯한 신하진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생명숲어린이집이 들어선 정자1동은 14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아파트와 1500세대의 저소득 다세대 주택단지가 있는 곳으로 보육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 공급률이 22%밖에 되지 않는 교육 격차가 큰 지역이었다.

이번 어린이집 개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호응을 받고 있다.

생명숲어린이집은 사회공헌재단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0곳을 목표로 건립하기 시작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며, 성남생명숲어린이집은 7번째로 개원했다. 지상 3층으로 14명의 교직원이 119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된다.

또 인근 공원을 이용한 자연체험 활동과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세보보닌 키즈 프로그램, 정서 안정을 돕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을 무료 제공해 아이들의 창의력, 사회성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

왼쪽부터 수은우 성남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유석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안계일 경기도의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이래서야 서울지하철 타겠나"

최근 10일새 다섯번 사고… 인력·장비 문제로

최근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5시12분께 한성대입구역에서 시흥 차량기지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회송 열차가 숙대입구역과 삼각지역 사이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는 회송 차량으로 승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5시간이 넘도록 지하철 4호선 서울역~사당 구간 하행선의 운행이 중단됐고 대부분 구간에서 20~30분 이상 지연 운행이 속출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날 오전 7시50분에는 신도림행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자동운전장치 이상으로 선릉역에서 갑자기 멈춰 서 출근길 시민 수백여 명이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에도 지하철 1호선 서울역~구로역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코레일 소속 수원 인천행 10개 열차가 최대 21분까지 지연 운행됐다.

지난달에는 30일 오후 1시40분께 코레일 지하철 1호선 수원 인천행 열차가 전기 공급 이상으로 멈춰 선 데 이어 고장 열차를 견인해 구로 차량기지로 들어가던 열차도 시청역에서 멈춰 섰다. 22일 오전 7시에는 코레일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선로 위 장애물에 부딪혀 10분간 멈춰 서기도 했다.

최근 10일 사이 무려 5건의 지하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5건 중 4건은 코레일 소속 열차였다.

시민들은 "최근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가 빈번하다"며 "출근길에 있었던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가 탈선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누가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겠나"라고 입을 모았다.

철도 관계자들은 빈번한 코레일 소속 전동차 사고 원인으로 오랜 지하철 운영에 따른 일부 시스템 장비의 낙후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일부 인력 재교육이나 장비 업그레이드가 시스템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 배정 등 외부 요인에 이끌려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3일 오전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코레일 열차의 선로 이탈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선로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헌 롯데쇼핑 대표 내주 중 소환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3일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쇼핑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내주 중 신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0·구속)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51·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4억9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양평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본부장 등은 당시 임대 중이던 건물의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본부장 등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신 대표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함께 다른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뒷돈을 신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외에도 미모(47·구속)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4·구속) 전 구매담당자(MD) 역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원과 2억7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롯데홈쇼핑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납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준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global

metro Russia

В «Сокольники» приехал Крым

metro Brazil

Mulher de roupa curta 'merece' abuso para 65%

65%가 "성범죄 원인 여성에게 있다" 브라질 국민의 대다수가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응용경제조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5%가 "노출을 하는 여성은 범죄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놀랍게도 전체 대상 중 약 66%가 여성이었다.

metro Nicaragua

Rico, sano y con menos calorías

푸드트럭서 건강식 판매 화제 니카라과의 푸드트럭에서 건강식을 판매하는 '킴기의 사장님'이 화제다. 웰빙 트렌드를 이끄는 주인공은 카를로스 코미노. 국립 호텔 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난해 11월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내놓는 메뉴는 햄버거와 타코, 돼지갈비 스테이크. 그는 "조미료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metro France

Des milliers de Français menacés d'expulsion

집세 못낸 세입자 수천명 퇴거 위기

프랑스 세입자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매년 프랑스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불법 거주자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주거 관련 단체 34곳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지불유예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프랑스에선 약 11만5000가구 이상이 집세 미납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주거협회 아베피에르는 지난해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37% 증가했으며 총 1만3000가구가 강제 퇴거당했다고 밝혔다.

강제 퇴거를 하게 될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길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베피에르협회는 현재 프랑스 노숙자의 10%가 강제 퇴거로 쫓겨난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집주인들의 돈놀음으로 집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세입자 보호 정책 아쉬워**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적은 월급을 받던 중 실직한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세 미납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자는 두 달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유에 따라 퇴거 연기는 3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의 경우 단 두 달만 머무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 이사할 곳이 없을 땐 쫓아낼 수 없다는 '달로(Dalo)' 지침이 있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달로 관련 단체는 "정부에선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팔 바르바르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크림 합병 안정화 기원행사 열려

행사명 '어 스타트 업'…분위기 띄우기 나서

최근 모스크바 소콜니키 공원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안정화를 기원하는 '어 스타트 업(A Start Up)' 행사가 열렸다.

소콜니키 공원 대변인 예카테리나 코체트코바는 "이 행사가 크림반도의 진정한 러시아 합병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행사명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스타트로 결정하게 됐다"며 "크림 지역을 모스크바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러시아와 크림 지역의 깃발을 꽂고 달리는 자전거 타기로 스타트 업 행사가 시작됐다. 구 소련식 미니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으로 출발 신호를 대신하자 러시아와 크림 지역의 깃발을 한 곳에 꽂은 자전거 세븐 대가 일제히 출발선을 떠났다. 특히 크림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프레임카드로 만들어 자전거를 치장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을 기념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는 30여 분간 계속돼 봄맞이 휴식을 즐기러 나온 모스크바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원에는 크림반도의 해변도 생겼다. 인공 야자수 아래서 DJ가 연신 흥겨운 디스코 음악을 틀어 시민들의 흥을 북돋았고 크림 해변을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을 넣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인공 해변에서는 비치발리볼 시합도 열렸다.

비치발리볼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시민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일명 '화합 속에서의 번영'이라는 테마로 30명의 청소년들이 세바스토폴 월츠를 췄고 시민들이 박자에 맞춰 고고 러시아를 외치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공원 한쪽에 마련된 먹거리 코너도 인기를 끌었는데 각 점포에는 크림 지역의 도시 이름이 붙어 있었다.

한 시민은 "크림식 체브레키, 이 지역 간식인 추르첼라(밀가루에 견과류를 넣어 만든 과자) 등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어 좋다"며 "크림 지명이 붙어있는 가게에서 간식을 받아드니 꼭 크림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이노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1993.70 (-3.65)	557.01 (-0.64)
금리(국고3년)	환율(원/달러)
2.89 (변동없음)	1057.30 (-0.50)

뉴스&뉴스

윤달 앞서 혼수 세일 3일 서울 목산 아이파크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평년보다 일찍 여름 상품을 선보이고 올가을 윤달로 인해 결혼을 서두르는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혼수 상품 세일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한진해운·현대상선 적자 늪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올해 1분기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추정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1분기 영업손실은 각각 349억원, 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어데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은 2011년 300%대에서 최근 들어 무려 1000%대로 급등했다. 현대상선은 이미 부분자본잠식 상태다.

신용등급도 크게 하락해 한진해운은 투기 등급 직전인 'BBB-'로 내려갔고 현대상선은 투기 등급인 'BB+'로 떨어졌다. /김현정기자

2차 정보유출 조회 서비스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등 2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카드사에서 고객들의 조회가 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회는 1차와 2차 유출 내역 모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카드 비밀번호 유출 여부에 대한 안내문 사항으로 1차 유출 당시 빠져나간 개인정보 항목과 2차 유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박정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0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0785

2005년 1월 24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8

흥국생명·롯데손보 TM 불완전판매율 최고

지난해 통신판매(TM)으로 불완전 판매율이 가장 높은 곳은 흥국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지난해 회계연도 비인 대리점 텔레마케팅(TM)에 의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비율이 2.58%를 기록해 TM영업을 하는 16개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공시됐다.

14개 생보사의 평균 불완전 판매율은 1.14%다.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불완전 판매율은 신계약 건수 대비 품질 보증 해지 건수, 민원 해지 건수, 계약 무효 건수를 합친 비율이다. /세이관기자 a lwr1333@

에버랜드 지주… 삼남매 계열분리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매입' 경영권 승계 사전 정지작업

issue&view 삼성 계열사 잇따른 합병

/박정원기자 sdj@metroseoul.co.kr

최근 잇따른 계열사 합병과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취득 등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조석이 완성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SDI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결정한 데 이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도 합병을 결의하면서 삼성 계열사 사업 부문 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 부문을 양여 인수, 향후 캐시카우 및 성장성을 확보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급식 및 식자재 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 분할하고 건물 관리 사업을 4800억원에 에스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에버랜드는 향후 지배구조 변환 과정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성장성 및 자금을 확보해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지배구조 변환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업 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5.61%를 총 2641억원에 취득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은 28.60%에서 34.41%로 높아졌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교차 출자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삼성생명이 제조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매입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환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구조 개편 토대를 확고히 한 후 그다음 수순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의 핵심은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가 돼 실질적인 지분율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면서 결국에는 자녀들끼리 계열 분리를 정착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부사장 등이 계열 분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구리참외 닮은 파파야메론 3일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파파야메론을 선보이고 있다. 파파야메론은 4월부터 5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과일로 개구리참외와 비슷하지만, 초록색 바탕에 검정 얼룩이 있고 속이 백육색을 띤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달 25일 코엑스 '커브드 UHD 콜로세움' 행사

삼성전자는 '커브드 초고화질(UHD) TV'의 압도적 몰입감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 앞에 '커브드 UHD 콜로세움 쇼케이스'를 마련한다.

커브드 UHD 콜로세움 쇼케이스는 삼성 65형 커브드 UHD TV 7대를 곡면 형태로 연결해 원형극장과 같은 형태로 구성했다.

이번 커브드 UHD TV를 통해 시연되는 영상은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유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기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와 올여름 개봉 예정인 '트랜스포머4'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해 특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커브드 UHD TV의 화질을 보다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질 체험존을 마련하고 퀴즈 이벤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 이벤트를 진행, 음료 교환권 및 관람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5~6월 여의도 IFC몰, 12~13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추가로 진행된다. /유현희기자 lyo4##@

삼성전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 앞에서 '커브드 UHD 콜로세움 쇼케이스'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이 커브드 UHD TV의 화질과 몰입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이자도 못내는 기업 등기임원에 10억

100대 기업 중 22곳이나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기임원에게 10억원대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3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위권내 기업 중 KT, 두산건설, CJ대한통운 등 2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1 미만이면 벌어들인 돈보다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22개 기업은 지난해 등기임원에게 최대 32억원, 1인당 평균 6억3000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지급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매출 100대 기업 중 등기임원의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SDI로 17억6000만원이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이 작년 보수로 29억9000만원, 김영식 이사는 10억2800만원을 받았다. 이자보상배율이 7.3인 삼성SDI는 지난해 12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이자비용으로 173억원을 썼다.

이자보상배율이 -0.8인 한진해운은 등기임원에게 평균 1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17억원, 김영민 전 사장은 23억9100만원(퇴직금 13억6800만원 포함)을 받았다. 한진해운은 영업손실 3076억원을 내고, 이자비용으로 3897억원을 지출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급감해 이자보상배율이 0.8로 떨어진 KT 등기임원들도 연봉 잔치를 벌였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퇴직금 11억5300만원을 포함해 29억7900만원을 받는 등 등기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4억100만원이었다.

GS건설은 작년 영업손실이 1조314억원, 이자비용은 1022억원에 달하지만 등기임원이 평균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GS건설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 17억2700만원, 허명수 부회장에게 6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김하균기자 kssk@

파라다이스 팔고 매일유업 샀다

미래에셋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눈길

국내 투자 시장에 펀드 열풍을 불러온 미래에셋 펀드들이 올 들어 파라다이스를 팔고 매일유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망 소비재를 선별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카지노주 비중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 식음료주를 늘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일 파라다이스 보유 지분 중 1.10%에 해당하는 99만6852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의 파라다이스 보유 지분율은 종전 7.31%에서 6.21%(564만1723주)로 줄었다.

파라다이스 비중을 줄인 상품에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펀드들이 대거 포함됐다.

적립식 펀드의 효시로 불리는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물론, 목표 전환형 펀드의 모태로 인기를 끈 미래에셋 드림타겟 펀드, 국내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설정한 미래에셋 역외펀드(SICAV) 등이 해당됐다.

이들 펀드 9종은 올해 1월 2일부터 파라다이스 주식을 장내 매도하기 시작해 지난달 31일까지 계속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

미래에셋이 이 기간 매일유업을 사들이기 시작한 점이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은 지난 1월 22일 매일유업 67만2411주를 새로 사들여 5.02%의 보유 지분율을 확보했다.

파라다이스 펀드 중에서 미래에셋 인덱스헤지 펀드와 SICAV 펀드 등 3종을 제외한 6종이 매일유업으로 들어왔다.

이후 본격적으로 매일유업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난 2월 28일까지 보유 지분율을 6.81%(91만2802주)로 확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카지노주가 강세를 보이자 미래에셋 펀드가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풀이했다.

조범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인천 영종도에 외국계 카지노 설립 허가가 나오면서 카지노주가 높은 수익률을 올리자 배당 펀드들이 이익을 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식준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이 파라다이스 비중을 줄였지만 남은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에서 매일유업을 포함한 식음료 업종의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식음료 업체들의 판매량 회복과 제품가격 인상 등의 기대감에 힘입어 식음료 업종지수는 올 들어 4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이날 현재 3만5000원으로 전년 말(2만6450원)에 비해 32% 넘게 올랐다. 매일유업은 4만4700원으로 전년 말보다 100원 하락한 상태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코스피 2000 돌파 쉬지 않네 3일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7일째 오르며 장중 2000선을 돌파했지만 3.55포인트(0.18%) 내린 1993.70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057.9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오전(오른쪽), 오후(왼쪽) 모습.

/연합뉴스

쌀뜨물 버리면 국물이 맹물

짠순이 경제학

전분질 비타민 녹아 있어
음식 밑물로 쓰면 감칠맛
비린내 제거 청소 효과도

쌀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 그동안 그냥 버렸다면 이번 기회에 쌀뜨물만의 매력을 제대로 활용해보자. 우습게만 보였던 쌀뜨물이 한층 더 화려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우선 쌀뜨물은 요리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쌀뜨물로 끓인 된장찌개가 맹물로 끓인 것보다 훨씬 구수하고, 감칠맛이 난다. 쌀뜨물에는 전분질, 비타민 등이 녹아 있어 국물로 사용하면 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김치찌개와 북어국도 쌀뜨물로 끓이면 맛이 좋다. 고등어처럼 비린내가 심한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할 때 10분 정도 담가두면 냄새 제거는 물론 육질도 부드럽고 연해진다.

각종 채소의 떫은 맛도 없애준다. 우엉이나 토란, 죽순, 냉이 같은 채소에서 느껴지는 약간 쓰고 아린 맛을 없애려면 요리 전 쌀뜨물에 잠시 담가 놓으면 된다. 고사리나 나물 역시 쌀뜨물에 불리면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맛 볼 수 있다.

밀폐용기에 밴 김치·반찬 냄새는 주부들의 골칫거리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도 냄새가 배고, 붉게 물 들어 버린다. 이럴 땐 쌀뜨물을 용기에 가득 담아 하루정도 두면 붉은 물도 김치 냄새도 사라진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그릇이나 도마도 쌀뜨물로 씻으면 효과적이다. 행주를 삶을 때도 유용하다. 쌀뜨물과 소금을 활용해 행주를 삶을 경우 살균 효과와 함께 행주 냄새를 확 잡는다.

쌀뜨물을 이용하면 청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쌀뜨물의 입자가 먼지를 흡착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집안 곳곳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얼룩진 거울이나 유리창을 닦을 때 쌀뜨물을 사용하면 반짝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코팅된 가구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김은지기자 mec@

산업부-방위청 소형헬기사업 본격화

소형무장헬기 및 소형민수헬기 등 소형헬기사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연계 개발 방안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한 양 부처의 오랜 고심 끝에 도출됐고,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와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에 착수했다.

소형민수헬기는 국내외 유수 업체가 국제 공동 개발 방식으로 기술 개발·시험 평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1만lbs급 소형헬기를 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또 소형무장헬기는 민수헬기에서 선개발된 민군 겸용구성품을 활용하고, 국제 기술협력을 통해 무장·사격 통제 체계를 통합해 2022년까지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수리온 개발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노후화된 군용헬기의 적기교체, 응급의료·해상감시 등에 활용되는 민수헬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5월 말까지 국내 체계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해 각 사업의 기획 및 사업화 방안뿐 아니라, 양 사업의 연계개발방안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 및 과제 기획 등 사업자 선정단계를 거쳐, 10월 경 본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할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과 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조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주형기자 jjh@

흥행 못한 G프로2·갤S5 '생일이 문제'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출시돼 판매 저조 — 내달 19일 제재 끝나길 기대

올 1분기 LG전자 'G프로2', 삼성전자 '갤럭시S5'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됐지만 이들 제품의 흥행 여부는 6월이 지나야 가늠될 전망이다.

3일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출시된 갤럭시S5의 국내 일평균 판매량은 7000대 안팎이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4 LTE-A가 출시 직후 일평균 판매량 1만~1만3000여 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지만 이동통신사 순차적 영업정지로 인해 현재 SK텔레콤에서만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의 흥행을 이동사가 발목 잡고 있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금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의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금지를 시작으로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통 3사는 현재 SK텔레콤만 단독 영업 중이지만 5일을 기해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 기간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협의 없이 지난달 27일 갤럭시S5 조도 물량을 그대로 출시, 가입자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 시장은 관망세가 강한 상황이다. 다음달 19일 이통 3사의 영업정지가 완전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지를 위한 경쟁이 또다시 치열해지면서 불법 보조금 살포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근 번호 이동 시장을 살펴봐도 SK텔레콤이 단독 영업을 펼치고 있지만 영업정지 이전에 비해 가입자 순증폭은 오히려 줄었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통신 시장 비저 잠잠하자 조조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돌풍을 기대했지만 시장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LG전자는 지난 2월 야심차게 G프로2를 출시했지만 보조금 살포가 어려워지자 오히려 지난해 출시된 G2 판매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현훈 LG전자 MC마케팅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G2의 경우 더 많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G프로2에 비해 일일 판매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G2의 경우 그 성능을 인정받으며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판매량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3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은 통신 시장이 잠잠하지 결국 자체대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의 출시 시기를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게 되자 애플이 아이폰6를 6월 조기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면서 상반기 출시 스마트폰 라인업의 흥행 여부는 6월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월이 되면 애플 '아이폰6' 출시와 더불어 기존 삼성전자 '갤럭시S5', LG전자 'G프로2', 팬택 '베가 아이언2' 등 주력 단말기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면서 "결국 이 경쟁에서의 승부가 올 상반기 제조사 간 단말기 흥행 여부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필기자 fyj0406@metroseoul.co.kr

LG유플·SKT 내일 '무제한 희비'

'영업정지' 비틀 터지로 새 요금제 효과 엇갈려

4월 5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희비가 엇갈린다.

오는 5일부터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시작하고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양사 표정이 바뀌고 있다. 한편 KT는 26일까지 영업정지라 신중한 상태다.

양사의 신경전은 무제한 요금제 출시에서 격돌했다.

지난 2일 오전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화와 문자메세지에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LTE8무한대 요금제'를 전보였다. 5일 영업 재개를 맞아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야심작이었다. 업계 최초란 타이틀도 잠시 30분 뒤 SK텔레콤도 무제한 요금제 'LTE전국민무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마침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출시 간담회를 하는 도중이라 유필계 CR 전략실 부사장은 "경쟁사 최고경영자(CEO)가 기자간담회 도중 유사 요금제를 불쑥 발표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는 5일 영업정지가 닥친 SK텔레콤의 조급함을 반영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은 갤럭시S5를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갤럭시S5 신규 고객을 선점하려는 취지에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5는 하루 평균 7000대가 팔리는 중이다. 시장 분위기에 비해 선전이란 평이 있지만 전작 갤럭시S4 하루 판매량 1만 대에 비하면 약세다.

통신 장애 후폭풍도 또 다른 악재다. 지난 2일 전국대리기사협회 및 이동통신피해자연대는 "SK텔레콤은 통신 장애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로 12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소비자원에 접수했다. 일부 가입자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효원기자 unique@

'작품'으로 다이닝 테이블 차려요 AK플라자는 봄 정기 세일을 맞아 오는 6일까지 하티짐 작가, 한국도자기와 함께 제작한 한정판 다이닝 컬렉션 중 효부인 4개를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직원들이 한정판 다이닝 컬렉션을 선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어벤저스2'에 세빛둥둥섬

효성이 투자한 세빛둥둥섬이 빛을 보고 있다. 세빛둥둥섬이 '어벤저스2',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 등 국제적인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로 잇따라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세빛둥둥섬 운영사인 플로섬은 지난 3월 말부터 2일까지 서울의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인공 섬인 세빛둥둥섬이 미국 영화 '어벤저스2'의 중요 배경 장소로 촬영된 데 이어, 미국의 슈퍼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의 최종 패션쇼 무대로 사용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30일 세빛둥둥섬은

세빛둥둥섬이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매주 금요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 미국 전역에 방송됐던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 한국 편의 마지막 파이널 패션쇼의 무대로 사용됐다.

'어벤저스2'에서 영화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최첨단 IT연구소로 촬영됐다. 2일에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매주 금요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 미국 전역에 방송된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 한국 편의 마지막 파이널 패션쇼의 무대로 사용됐다.

/김태균기자 ksoul@

MS '다시 꿈꾸는 미래교육' 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1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꿈꾸는 미래 교육: 교실 안의 변화'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진정한 미래 교육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다시 꿈꾸는 미래 교육: 교실 안의 변화'는 선생님과 학생 주도의 창의적인 학습 방식의 변화가 최우선이며, 기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변화를 돕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교육 사업 철학이 녹아있는 전략이다.

이는 IT 기기나 기술을 앞세우는 기존의 '스마트 교육'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며 진정한 의미의 '미래 교육'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 학습, 원활한 의사소통 등과 같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 세계 학교와 교육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터 네트워크'은 114개국 1만2000개 학교, 460만 명의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스쿨 투어 프로그램', '오피스 투어 포 에듀케이션'은 협업, 지식 구성, ICT 활용, 자기 조절 등 미국 스탠퍼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21세기 학습자 역량 연수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접목시켜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하우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미래 교육 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갑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전무는 "전 세계의 많은 학교들이 미래 교육을 고려할 때 IT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보다는 디바이스 구입 자체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미래 교육은 학습 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보다 선생님이 먼저라는 전략으로 진정한 미래 교육의 실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6@

"PP 살길, 콘텐츠 다양화"

김성일 현대미디어 대표 "불법 다운로드 등 정상화시켜야"

"향후 유료방송 시장은 시장 변화에 적응한 미디어만 생존할 것이다."

정부가 제1의 국정 목표로 꼽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을 지목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김성일 현대미디어 대표(방송콘텐츠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고객의 TV 시청 행태가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데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콘텐츠"라며 "결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시청자가 서로 적응하면서 정반합의 개념보다는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콘텐츠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는 "현재 100개 채널에 대한 대가가 고작 1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콘텐츠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 다운로드 등 음성화된 것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유료방송은 공짜라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1억 인구도 안 될 만큼 작은데 PP는 너무 많다.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가격 외에 차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 보니 결국 가격으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요즘 이슈가 되는 통신사 보조금 문제와 유사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성일 현대미디어 대표는 "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진영기자

수익 창출에 충분한 크기의 시장을 가진 외국에서는 정원 가꾸기·스포츠 스타의 가십거리 등 특정 분야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방송의 공공성 확립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현대미디어는 어떤 행보를 걷고 있을까?

김 대표는 "현대미디어는 인류 보편적인 것을 다룬 '닥터스 스토리' 등 일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해외에 팔고 있다"며 "거액의 자금 투자는 어렵지만 '닥터스 스토리'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닥터스 스토리'는 '하나의 테마, 두 명의 의사'라는 콘셉트로 매회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시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보살피는 호스피스 의사와 생명의 탄생 그 정점에 서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다른 시각을 다루는 식이다.

요즘 선정성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트렌디 채널 토크쇼 '오늘밤 어때'의 시청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는 그보다 심한 것도 많다.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재미있었다"면서 "'K팝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해도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metroseoul.co.kr

기본료만 따지면 KT가 가장 싸다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분석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일 앞다퉈 기존 음성통화·문자메시지뿐 아니라 데이터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TE8무한대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30분 뒤에 SK텔레콤이 'LTE전국민무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KT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오후 'LTE완전무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통신업계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통 3사가 나란히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는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를 제한 없이 제공한다. 이번 무제한 요금제의 핵심은 데이터다. 동영상 시청 등으로 평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라면 무제한 요금제 선택이 유리하다. 각사 모두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점검한 후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사 최저 무제한 요금제의 기본료만 보면 KT가 가장 저렴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동일하다. 하지만 24개월 약정 할인이 들어가면 요금액이 달라진다. 이통 3사는 24개월 약정 가입자에 한해 매월 1만8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각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SK텔레콤의 'LTE전국민무한75'와 LG유플러스 'LTE8무한대' 요금제는 음성통화의 경우 무선통화만 무제한으로 서비스한다. 반면 KT의 'LTE완전무한' 요금제는 무선통화뿐 아니라 유선통화도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뒀다.

이 밖에 요금제별 제한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약관을 확인할 것을 권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비교

SK텔레콤

요금제명	기본료(VAT별도)	음성	메시지	데이터	요금할인(24개월)
LTE전국민무한75	7만원	무선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1만8750원
LTE전국민무한85	8만5000원	유무선 무제한			2만원
LTE전국민무한100	10만원				3만4000원

KT

요금제명	기본료(VAT별도)	음성	메시지	데이터	요금할인(24개월)
LTE완전무한79	7만9000원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만6000원
LTE완전무한129	12만9000원				3만원

LG유플러스

요금제명	기본료(VAT별도)	음성	메시지	데이터	요금할인(24개월)
LTE8무한대80	8만원	무제한(무선)	무제한	무제한	1만8000원
LTE8무한대85	8만5000원				

* 데이터는 3사 모두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무제한 제공

3000명 콘서트 초대 '올레'

KT 우수 고객 감사 이벤트

KT는 '국제전화 001'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3000여 명을 콘서트에 초청하는 '국제전화 001 우수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제전화 001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하는 2014 브랜드파워(K-BPI) 국제전화 분야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제전화 부문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를 수상한 기념으로 이뤄졌다.

우선 19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진행되는 '국제전화 001 우수 고객과 함께하는 J 토크콘서트'에는 50명(1인 2매)을 추첨해 티켓을 제공한다. KT는 다음달 29일에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JTN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총 12번의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가로 개최한다.

또 국제전화 001을 사용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900명은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KT, 전국 LTE-A 통신망 일제 정비 KT는 전국에 걸쳐 LTE-A 통신망을 일제 정비하고 주요 지역 이동기지국 설치와 확대 지원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품질 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KT 제공

SKT '올인원 요금제' 미국까지 확대

SK텔레콤은 발신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로밍을 묶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액형 '올인원 요금제'의 제공 범위를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3개 국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위 3위권 해외 여행국이기도 하다.

패키지형 로밍 상품인 이 요금제는 29·59·99 등 3종류로 구성됐다. SK텔레콤 고객은 요금제에 따라 3~7일 동안 발신 음성통화 20~100분, 문자메시지 20~100건과 함께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별도 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때보다 최대 67% 할인된 가격으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용환 SK텔레콤 제휴마케팅본부장은 "국내 유일 패키지형 로밍 서비스인 '올인원 요금제'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로밍 서비스 국가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휴보이 가입 대학생에 G패드

LG유플러스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U+숍(Shop)'에서 휴보이에 가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G패드 정품 케이스, 블루투스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U+숍에서 휴보이에 가입하고 대학교 학생증을 보내면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벤트 대상 모든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LG전자 G패드 정품 케이스 또는 플랜트로닉스 블루투스 이어셋을 증정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G패드 정품 탁상용 충전 거치대를 제공한다.

한편 U+숍에서 휴보이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는 개통 후 1개월간 이용 가능한 U+HDTV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장윤희기자

아빠 투수 아들은 타자 엄만 댄스응원

MS 비디오게임기 '키넥트' 온가족 실내운동 즐기기 제격

"이번 주말에도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찾아오면 어쩌지."

황사의 계절 4월이 되면서 프렌디(친구 같은 아빠)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7년 만에 가장 강력할 것이란 중국발 황사 때문에 면역력 약한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온몸을 인식해 즐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모션 비디오게임기 '키넥트'와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키넥트 매니아'를 자처하는 장원규(31, 서울 돈암동)씨의 도움을 받아 때로는 프로야구 선수로 때로는 댄싱머신으로 변신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본다.

◆아빠는 김현수, 나는 김광현

최근 개막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열정을 안방에서 직접 체험해 보면 어떨까. 키넥트의 대표 타이틀인 '키넥트 스포츠'에서 야구를 선택하면 아빠와 아이가 투수와 타자로 변신해 신나는 승부를 벌일 수 있다. 키넥트가 온몸을 인식하기 때문에 별다른 도구 없이 투구 동작과 타격 동작만 취하면 된다. 장난감 방망이를 가지고 경기를 벌이면 더욱 재미있다.

최근 시즌이 종료된 스키의 재미를 다시 맛보는 것도 가능하다. 리프트를 타기 위해 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멋진 코스를 활강하는 스릴을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다.

이 밖에 축구, 탁구, 스키, 테니스, 미식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의 재미를 실내에서도 만끽하는 것이 가능하다.

◆엄마와 함께 댄싱파티

자녀하고만 논다고 아내가 질투한다면 키넥트의 '댄스 센트럴 3'이 유용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부터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파티를 열 수 있다. 특히 게임 내 '스토리 모드(Story Mode)'에서는 1970~80년대 복고댄스를 배울 수 있으며 '파티 모드(Party Mode)'를 통해서는 최대 8명까지 함께 춤을 추는 것도 가능하다.

X박스 라이브에 접속하면 최신곡을 내려받아 바로 즐길 수 있다.

◆홈 트레이너 프로그램도

트레이닝 강사를 집으로 초빙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이키+ 키넥트 트레이닝(Nike+ Kinect Training)'은 운동선수들의 실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장점이다. 사용자의 정확한 몸 상태를 측정해 개인별 맞춤 운동을 제시해주고 운동하는 내내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자세 교정도 받을 수 있다.

장씨는 "키넥트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때문에 소위 '게임중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온몸을 이용하는 게임 방식 덕분에 30분만 즐겨도 온몸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 효과가 뛰어나고 아이의 인성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프렌디' 장원규씨가 거실에서 자녀와 키넥트로 야구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던전스트라이커 화려한 컴백 아이템 풍성… 콘텐츠 신선

17~20일 리미티드 테스트

한때 '금'은 위험할 정도로 뛰어난 게임성을 갖춰 게이머의 사랑을 받았지만 운영 미숙과 콘텐츠 고갈이라는 악재를 만나 서비스를 접었던 온라인게임 '던전스트라이커'가 새로운 둥지에서 새 출발을 한다.

엑토즈소프트는 3일 '뉴 던전스트라이커'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 유저들에게 지적받아 왔던 문제점들을 수렴해 아이템과 액션, 콘텐츠 등 3개 키워드에 맞춰 개편된 모습을 선보였다.

먼저 아이템이 대대적으로 변화됐다. 던전에서 완제품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됐으며 장비의 등급이 3단계 늘어난 7단계로 바뀌었다. '주문각인문'과 '젬스톤' 등의 신규 콘텐츠가 추가돼 던전 플레이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강화됐다.

더불어 테마 던전 리뉴얼을 비롯해 '어비스 던전' '시간/공간의 균열' '챌린지 던전' 등 신규 콘텐츠가 대거 추가됐다.

기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테마 던전'을 100여 개로 분리해 플레이 타임을 5분에서 8분 내외로 대폭 감소시켰으며 클리어 시 100% 레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어비스 던전' 6종과 50레벨 이후 즐길 수 있는 '시간/공간의 균열', 게임 내 최고 난이도 던전이자 유일하게 '에픽'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챌린지 던전'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엑토즈소프트는 네이버와 네모위즈게임즈 등 2곳과 '뉴 던전스트라이커' 채널링 계약을 맺고 '리미티드 테스트'부터 행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17~20일 진행되는 '리미티드 테스트'는 정식 서비스에 앞서 게임 콘텐츠 및 서버 운영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뉴 던전스트라이커'의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게임, 피망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현아처럼 짜릿한 액션 '미스틱파이터'

2D 횡스크롤 MMORPG 오픈 · 마법사 캐릭터 화제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가 홍보하는 온라인게임 '미스틱파이터'가 3월 오픈했다.

CJ E&M 넷마블은 2D 횡스크롤 액션 MORPG '미스틱파이터'의 공개 서비스를 이날 시작했다.

'미스틱파이터'는 뱀프, 검사, 전투로봇 등 주요 캐릭터를 중심으로 근미래 도시의 SF 판타지 세계관을 가진 2D 횡스크롤 액션게임으로 탱크에 올라타 돌진하고 다양한 사물을 던져 폭파시키는 등 짜릿한 파괴 액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서비스에서는 화려한 마법사 캐릭터가 최초로 공개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캐릭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캐릭터별 스킬 및 공격 효과 등이 대폭 개선돼 더욱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게임 플레이 모드에서도 '아케이드 모드' '브랜치 모드' '호위 모드' '방어 모드' '아레나 모드' 등 단조로운 게임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독특한 스테이지를 만날 수 있으며 13레벨 이상부터 입장 가능한 '요일 스테이지'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매일 색다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블리자드 '하스스톤' 아이패드 출격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이 태블릿 PC로 들어온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최초의 무료 게임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사진)이 3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아이패드 앱스토어에 출시됐다고 전했다.

하스스톤 아이패드 버전은 곧 다른 지역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PC 버전을 공식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하스스톤 플레이어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상당수 팬들은 아이패드 버전 출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하스스톤은 태블릿에 적합한 게임으로 우리는 플레이어들이 거실 소파나 뒷마당 혹은 카페 등 아이패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스스톤을 플레이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스스톤은 윈도 및 맥 기반 PC에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박성훈기자

피파3 '고 브라질!' 개최

넥슨은 3일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3'에서 1000만 EP, '월드 XI 선수팩' 등 푸짐한 아이템을 증정하는 '고 브라질! 국가대항전 이벤트'를 연다.

4월 30일까지 4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국대 이벤트'는 참가자들이 월드컵 진출 32개국 중 무작위로 1개국에 배정돼 게임 플레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포인트를 쌓고, 주 단위로 산출되는 '국가별 누적 포인트' 순위에 따른 각종 보상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국가별 누적 포인트는 국가별 참가자 전원의 '배지 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게임 내 매치를 완료할 때마다 2포인트가 적립돼 하루 최대 20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다.

벚꽃 흩날리면 하늘도 핑크빛

국민 벚꽃 축제로 자리 잡은 진해 군항제에서는 벚꽃이 만들어내는 봄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벚꽃 축제의 대표' 진해 군항제 10일까지 손짓

봄 향기를 잔뜩 머금은 향기로운 꽃비가 내린다. '36만 그루 벚꽃누리, 함께하는 봄의 향연'을 주제로 국민 벚꽃 축제로 자리 잡은 '진해 군항제'가 시작된 것이다. 오는 10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등 진해 도심 일대에서 펼쳐지는 봄꽃 향기에 취해보자.

◆거리 곳곳 근대 건축물 남안 더해

축제가 열리는 진해는 벚꽃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벚꽃 천지다. 축제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36만 그루의 벚꽃들이 화려하게 수 없는 아름다운 봄 풍경을 빚어내고 있다. 또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꽃비 우산까지 설치돼 있어 낭만을 더했으며 벚꽃 명소로 유명한 안민고개와 경화역도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군항제가 열리는 중원로터리 일대 근거리에는 100년 된 건물들이 가득해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사적으로 등록된 진해우체국과 원해루, 선학곰탕, 흑백다방 등이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군항제가 끝난 이후에도 30일까지 매주 주말 진해중앙시장 분수광장에서 분수 벚꽃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꽃쇼, 별밀축제… 밤에 더 볼 만

축제에서는 벚꽃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진해루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이충무공 추모 행사,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여좌천 제황산 별빛축제 등의 다양한 예술 행사가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진다.

특히 진해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에서는 군악대의 웅장한 마칭 공연과 의장대의 절도 있는 의장 시범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함정과 거북선·박물관 등 군부대 시설이 개방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아울러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에서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공원 내에 있는 로망스다리에서는 벚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기차표를 시장 상품권으로 교환

축제 기간에는 진해중앙시장에서 또 다른 군항제가 열린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창원시가 13일까지 창원역, 마산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열차 종류나 거리에 관계없이 열차 운임의 20%를 진해중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행사를 마련한 것.

가까운 진해역 광장에 설치된 진해중앙시장 홍보관에서 기차표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축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관광객 대상의 노래자랑인 열전 노래방과 벚꽃 이미지와 어울리는 관광객은 선발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증정하는 벚꽃 공주 페스티벌, 즉석 레크리에이션 등이 재미를 더하고 시장 내 지역 제과점에서는 진해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벚꽃빵도 판매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4월 1~10일(화~목요일)
- 장소: 경남 창원시 중원로터리 등
- 문의: 창원시청 축제지원 담당 055)225-2341

구석구석

◆영덕대게축제
- 날짜: 4월 3~6일
- 장소: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일원

기원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축제에서는 황금 영덕대게 낚시 체험과 영덕대게 경매 경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강구교, 강구대교 주변에서는 수상 자전거와 요트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체험장마다 체험 스탬프장이 설치·운영된다. 또 4곳에서 스탬프를 받은 관광객은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영취산 진달래축제
- 날짜: 4월 4~6일
- 장소: 전남 여수시 영취산 일원

전국 진달래 3대 군락지로 잘 알려진 영취산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이미 산 정상까지 만개한 진달래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30~40년생 진달래를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크게 4곳으로 나뉘는 진달래 군락지를 직접 산책하며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된 흥국사 탐방도 가능하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2014
- 날짜: 4월 3~13일
-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갑자기 시작된 이상 고온으로 인해 시작을 앞당긴 축제에서는 봄에 가장 아름다운 벚꽃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게다가 '꽃과 예술의 하모니', 그리고 '행복 여the'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했다.

바닷길 열리는 소쿠리섬 '깜짝!'

창원 앞바다 세가지 매력

창원의 봄에는 벚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주목하는 창원 바다를 만나보자.

◆도심에서 감상하는 바다 풍경

먼저 노심 속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진해루는 새로운 창원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되며 특히 주상 삼보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건립된 진해루에서 바라보는 창원의 야경은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 조형놀이대, 수상레저시설 등도 갖춰져 있다.

◆소쿠리섬의 색다른 볼거리

소쿠리섬은 바닷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으로 봄을 시에는 소쿠리섬과 남쪽의 곰섬 사이의 바닷길이 열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게다가 여유가 다가오면 멸치 건조 작업을 직접 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정유원지, 돝섬

황금돼지섬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유원지 돝섬은 봄이면 야생화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다. 각종 조류와 꽃나무가 봄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섬 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멋들어지게 자란 벚꽃나무와 팽나무 등 오랜 고목을 만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용유 8경 즐기며 해변 트레킹

코레일공항철도 추천 걷고 싶은 봄길 10곳

코레일 공항철도가 본격적인 봄꽃 개화 시즌에 맞춰 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항철도 노선 주변 '걷고 싶은 봄길' 명소 10곳을 추천했다.

먼저 ▲용유 8경의 테마가 있고 해변 트레킹에 좋은 영종도 용유바닷길 ▲해변 송림과 조화를 이루는 무의도 벚꽃길 ▲바다와 벚꽃이 어우러진 영종도 말문고개 벚꽃터널 ▲산벚꽃과 진달래꽃길로 유명한 신도 구봉산 등이 섬 여행을 곁들인 봄꽃 나들이 코스로 소개됐다.

또 대규모 개나리 군락지가 조성돼 개나리꽃 축제가 펼쳐지는 인천공항 하늘공원, 봄바람 맞으며 벚길 따라 걸을 수 있는 아라뱃길, 영화 '어벤져스2'를 일자이자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의 방송사 및 엔터테인먼트 시옥이 잇따라 입주해 미래도시를 방불케 하는 DMC미디어 단지 등도 걷고 싶은 나들이 코스로 꼽혔다. /황재용기자

영종도 말문고개 /코레일 공항철도 제공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 없이 끝낸다

초기·중기 증상일 땐 도수 운동 요법 도움
말기 접어든 환자 10분징도 고주파로 해결

30대 여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 진단을 받고 치료했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엉덩이 통증과 다리 당김이 심해지면서 좀 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고자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많고 치료 받는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원장은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으며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후 이 원장은 요추 신경치료 주사로 치료를 실시했으며 B씨는 치료 후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 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고주파 디스크 치료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과학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침치료, 추나 요법, 교정치료, 약물치료, 신경 성형술 등만 받다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척추관절 치료 병원인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한다. 이후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강남조이스병원의 대표 치료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한다. 이 시술은 기존의 고수의 열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다른 방법으로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치료법이다.

이승주 원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개그우먼 김민경 / 강남조이스병원

또 강남조이스병원여의도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이대병원 '이화 생명나눔 캠페인'

10일 김옥길홀서 열려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위원회가 오는 10일 병원 김옥길홀에서 이화 생명나눔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정순섭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생명윤리(권복규 이화여대 교수) ▲생명을 나누면 세상을 살린다(유명철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이사장) ▲한국 장기 기증의 현황과 미래(하종원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등의 강연과 함께 이식 환자들의 경험담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장기 기증 및 조직 기증 희망 서약과 함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 전달식도 이어진다.

장기 기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권(4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구용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위원장은 "나눔 중에서도 특히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은 고귀한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나눔의 의미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장기 기증자 발굴 및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명 나눔 활성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황재용기자

황사·미세먼지·꽃가루…눈물 마를새 없네

봄철 눈 건강 지키려면

황사 바람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눈에 자극을 주고 각종 안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봄철에는 안구건조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황사·미세먼지·꽃가루 등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 햇 자외선은 선글라스로 막아야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잠시만 외출을 해도 눈에 이물감이 들고 충혈·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대기가 건조해 눈이 건조해지는데 이때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이물질이 렌즈에 달라붙기 쉬울 뿐 아니라 빼내기도 어려워 알레르기성 결막염 및 각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렌즈보다는 보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게다가 봄볕 또한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봄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는데 봄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눈이 뻑뻑하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눈의 피로 풀어주는 눈 스트레칭

이와 함께 눈 스트레칭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가볍게 위쪽을 쳐다본 후 셋까지 세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셋을 세는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이 눈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온찜질 또한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또 물을 자주 마셔 눈에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이뇨 작용이 촉진돼 체내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 카페인을 피해야 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은 "외출한 다음에는 반드시 손부터 씻고 집 안은 자주 환기를 시켜 집 진드기·집 먼지 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다"며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손에 상주하는 세균이 결막에 침투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눈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스무디킹 이젠 '라이프스타일 센터'

새 BI·비전 선포…슬림·피트니스·에너자이즈·뷰티 건강 목적별 메뉴보드 등 고객 편의 강화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이 '기능성 스무디 전문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건강한 목적 실현을 돕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센터(a healthy & active lifestyle center)'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선포했다.

스무디킹은 2일 강남역점에서 스무디킹의 새로운 브랜드아이덴티티(BI)와 비전을 발표하고, 스무디킹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김성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 건강 목적별로 구성된 스무디를 각각의 건강 목적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시음 행사를 진행하며 스무디 이용 선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고 품종의 과일과 영양 파우더가 함께 블렌딩된 기능성 스무디로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무디킹이 앞으로는 스무디를 선택하는 각 고객들의 건강 목적을 함께 이해하고, '헬시&액티브 라이프스타일 센터'로서 건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스무디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스무디킹은 먼저 이를 위해 브랜드의 얼굴인 BI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진행했다.

미국 글로벌 기준으로 40년간 유지해온 브랜드 심볼을 바꾸며 스무디 한 잔에 기능성 스무디 이상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를 담고자 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새롭게 선보인 로고는 기존의 클래식함을 벗고 더욱 활기차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됐으며 스무디킹의 상징인 왕관은 3명의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연상시켜 '헬시&액티브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경험하는 고객들이 스무디킹을 통해 실현하게 될 건강한 커뮤니티를 상징한다.

또 각 스무디를 고객들의 이용 목적에 맞게 재배치해 메뉴 카테고리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운 목적별 메뉴보드를 통해 슬림다운, 피트니스, 에너자이즈, 뷰티 등 고객들의 주요한 건강 목적에 맞는 스무디를 각 카테고리별로 선택하기 쉽게 제안하고, 고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목적별 스무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효진기자

남양 분유가격 8~11% 인상

임페리얼드림 아이엠마더 보급형 제품은 안올리기로

남양유업이 분유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8~11% 인상한다.

남양유업은 500억원을 투자해 첨단설비를 갖춘 충남 세종공장에서 기존 분유 제품을 리뉴얼한 '임페리얼 드림XO월드클래스'와 '아이엠마더'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마트MSD'의 3단계 건조 입자화 공정을 거쳐 물에 더 잘 녹아 분유를 젖병에 넣고 흔들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새로 선보인 '뉴클 Selpro35' 비피도올리고' 등 기능성 원료를 추가해 모유와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측은 임페리얼드림XO 가격을 기존 제품(2만4200원)보다 11.1% 오른 2만6900원, 아이엠마더는 3만6900원으로 기존 제품(3만4100원)보다 8.2% 올렸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해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 가격이 1ℓ당 106원(12.7%) 오른 것을 비롯해 원부자재 가격이 최대 30% 이상 인상됐지만 분유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신제품에는 신규 원료 사용 및 공정 추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해당 제품의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률은 7~8%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급형 분유의 경우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1만5000원대 분유인 '아기사랑수'와 기타 분유 제품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운기자 ysw@

'94번가' 시원한 맥주 맛·치킨 맛 한수 위

굽네치킨 본사 가맹사업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선릉직영점에서 설명회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엔푸드에서 저온 숙성 저장고가 있는 맥주전문점 '94번가(94street)' 가맹 사업을 전개한다.

94번가는 생맥주 저장통을 대형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저장통을 실온에 보관하다 맥주를 따를 시 급속 냉각기를 이용해 억지로 시원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과 비교해 맛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94번가는 지난 2012년 7월 선릉역 부근에 직영점을 오픈해 운영해 왔으며 밝고 모던한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굽네치킨만의 다양한 치킨 요리 및 노하우로 일반 치킨 메뉴와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고 있다. 선릉역 맛집으로 유명해진 94번가는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입소문만으로 이미 3개의 가맹점을 오픈했고 3월에는 송파와 인천 송도 가맹점이 오픈했으며 이달에도 속초·오창·나주 등에도 가맹점을 열 계획이다.

94번가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선릉직영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은 인기메뉴를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지방에 있는 예비 창업주들을 위해 앞으로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광역시에서도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1644-9792)와 홈페이지(www.94st.co.kr)를 통해 가능하며 예비 창업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허창원 지엔푸드 신규사업부 차장은 "그간 보편적인 맥주전문점이 경쟁하던 시장에 94번가가 들어오며 앞으로는 맥주의 맛과 차별화된 치킨 요리로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94번가는 앞으로 가맹 사업을 활성화해 2015년까지 100호점 오픈, 2017년까지 30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대학로 '여대생 페스티벌'

오는 4일과 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여대생을 위한 축제 '여대생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페스티벌은 여대생들이 여대생들을 위해 만든 행사로 지난 2012년 동덕여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넌 넌, 넌 인연과 세월 그리고 계절을 주제로 ▲이야깃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느낌거리 등의 콘텐츠로 진행된다.

특히 이야깃거리에서는 여대생의 대학생활과 휴학·취업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컨설팅이 이어진다. 놀거리로는 야외 공연과 플레이존 등 여대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캡슐담배 신제품 아이디어 톡톡 튀네

국내 담배 시장에 이색 담배들이 차례로 선보인다.

먼저 KT&G는 국내 최초로 초슬림 담배에 공간필터와 캡슐을 동시에 적용한 초슬림 캡슐 담배인 '에쎄 체인지 W'(사진 왼쪽)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흡연 도중 필터 안에 있는 캡슐을 터뜨리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시원하고 산뜻한 맛으로 바뀌는 제품이다.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1.0㎎, 0.1㎎이며 가격은 갑당 2500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는 14개비 포켓팩 캡슐 담배인 '던힐 엑소틱'을 6일 출시한다. 던힐 브랜드 역사상 가장 혁기적인 신제품이라는 이 제품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하고 색다른 맛을 선사하는 캡슐이 적용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담배 개비 수를 줄인 것은 대부분의 젊은 성인 흡연자가 하루 평균 14개비 정도의 담배를 소비한다는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6㎎, 0.50㎎이며 가격은 갑당 2000원. /정은실기자

스파르타런·좀비런 출발!

기지개 편 러닝의 계절 이색 레이스 행사 봇물

아웃도어 활동으로 각종 러닝대회가 몇 년 사이 급속하게 늘어나며 러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마라톤에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이색 레이스 행사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인 마라톤에 부가적인 이벤트를 융합한 대회를 찾는 이른바 '레이스 알파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놀이가 결합된 이색 레이스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리복은 오는 5월 11일 춘천 비발디 파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는 이색 장애물 통과 경기인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코스는 '스프린트 레벨'이다. 이 코스는 5km 거리로 15개 이상의 장애물로 이뤄져 있어 전 세계적인 레이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크록스(대표 이남수)는 형형색색의 컬러 파우더를 던지며 5km 워킹 레이스를 벌이는 '크록스 컬러런 워킹'을 오는 27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벌인다. 이 이벤트는 다양한 색상의 컬러 파우더를 레이스 참가자들끼리 던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미끄럼틀 존 등 이벤트 구간을 통과하며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 K 팝 공연장에서 개관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에 참가자들이 뻘 웅덩이를 통과하는 모습. /리복

티켓몬스터는 밤늦은 시간 좀비들과 추격전이 펼쳐지는 '좀비런 시즌2'를 오는 25일과 26일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진행한다.

좀비런은 술래잡기라는 게임 요소를 가미한 이색 러닝대회다. 제한 시간에 맞춰 텅 빈 놀이공원 안에서 좀비 또는 도망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총 3km를 달리는 레이스로 구성됐다. 레이스 중 5개 구간에서 좀비들이 쏟아져나오는데 그들로부터 생명띠를 지켜내며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후원하기 위해 오는 5일에 서울대공원에서 '2014 제1회 커플런'을 개최한다.

연인과 함께 즐기는 커플런은 참가비 중 일부를 자연환경국민신탁에 동명 기금으로 기부하게 돼 착한 레이스로도 불린다. 레이스 후에는 히트인 러브러브 콘서트도 준비돼 있어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소녀풍 옐로…이성적 블루

컬러로 스타일 연출하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봄을 닮은 컬러 아이템에 손이 가기 마련이다. '컬러 테라피'라는 말도 있듯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 아이템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패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봄의 대표적인 꽃 '개나리'의 옐로 컬러는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이 강해 소녀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싶을 때, 혹은 따뜻한 색감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은 경우 매치하면 좋은 색상이다. 반면 이성적이고 외향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면 블루 컬러 아이템을 선택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울러 블루 컬러는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공부나 업무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준다.

눈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경우 편안한 그린 컬러가 좋다. 그린 컬러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비비드 컬러 아이템의 경우 처음부터 의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백이나 슈즈 등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액세서리로 스타일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 열린다

내달 10일 잠실실내체육관

러쉬가 5월 10일 오후 5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 3'을 개최한다.

'글라스 풀 오브 러쉬'를 테마로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 한 잔의 와인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러쉬 팜'에서 진정한 워트와 빛나는 가치의 러쉬를 한 잔 가득 담아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콘서트장 야외에는 향긋한 러쉬 밤과 함께 신선한 과일, 채소 꽃 등을 판매하는 '러쉬 파머스 마켓', 영국 수석 셰프와 함께 입욕제를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키친"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성시경, 바스타즈, 베이커 리쌍, 장기하와 얼굴들, 씨스타, 자우림 등 여섯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러쉬는 현재 전국 49개 매장 및 러쉬 홈페이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콘서트 티켓을 소진 시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러쉬 홈페이지(www.lush.co.kr) 또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ush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2357. /정해인기자

MLB 입은 수지와 함께 LA다저스 홈으로

'엠엘비 수지앱' 다운 받으면 응원원정대 자동 응모

캐주얼 스포츠 브랜드 MLB가 수지의 화보를 스마트폰 잠금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엠엘비 수지앱(MLB SUZY APP)' 출시와 동시에 수지와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LA응원원정대'를 모집한다.

LA응원원정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엠엘비 수지앱을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 이벤트를 통해 총 10명을 선정 후 오는 5월 27일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에 맞춰 3박5일 LA 응원 자유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LA 응원 자유여행 패키지는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LA 다저스 홈경기 티켓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정연 MLB 마케팅팀 실장은 "최근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으로 MLB가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서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특히 광고모델 수지와 함께 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얼마 전 공개된 수지의 2014 봄·여름 화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가수와 배우를 넘나들며 팔방미인의 면모를 보여준 수지는 화보에서 스포티한 섹시 스타일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운 콘셉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컬러믹스가 돋보이는 스타디움 점퍼나 트렌디한 스트리트 감성의 스냅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몸매와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선보여 남심을 흔들었다.

수지 화보와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LB 공식 홈페이지(http://www.mlb-korea.com)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LBKOR)을 통해 볼 수 있다. /김학철기자

속칭 '개구리알' 완구 안전기준 미달

시중에서 흔히 '개구리알'로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고흡수성 폴리머를 소재로 한 완구와 교재 등 대부분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고흡수성 폴리머(Super Absorbent Polymers) 소재 완구와 교구 9개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기준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고흡수성 폴리머란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해 팽창하거나 젤(Gel)화하는 물질을 말한다. 주로 기저귀나 생리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고흡수성 폴리머를 삼키게 되면 체내에서 팽창해 심한 고통이나 구역질 탈수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작년 구슬 모양의 폴리머 완구를 리콜했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 조사 대상 9개 제품 모두 포장에 사용 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삼킴 주의 등 경고 문구는 7개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 /정해인기자

에뛰드하우스 30% 할인

에뛰드하우스가 오는 5일까지 면세점을 제외한 전국 매장 및 에뛰드하우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3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에뛰드하우스 '핑크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VIP 등급인 '로얄 핑크 멤버'는 10%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회원이 아니더라도 당일 매장에서 신규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1인당 4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정해인기자

metroentertainment

감성 보컬 vs 마성의 울림 vs 기타 소년

<권진아> <버나드 박> <샘 김>

K팝스타3 톱3 매력과 우승전략 분석

이하이-악동뮤지션 등 개성 있는 뮤지션을 발굴한 SBS 'K팝스타'가 오는 6일 톱 2 결정전에 이어 13일 최종 결승전을 치른다. 차세대 K-팝 스타 후보인 권진아·샘 김·버나드 박의 각양각색 매력과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해본다. /김효정기자·hjkim@metroseoul.co.kr

■ 중저음 보이스 버나드 박

"동양인에게서 나올수 없는 울림" 극찬 가요보다 팝에 강한 면모…선곡 관건

버나드 박(22)은 중저음의 안정된 목소리로 여심을 흔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톱 4 생방송 무대에서 리처드 막스의 '라이트 히어 웨이팅'을 부른 그는 솔(SOUL) 충만한 목소리로 심사위원 점수 299점을 받아 강력한 경쟁자 샘 김(284점)과 권진아(292점)를 압도했다. 'K팝스타'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심사위원에게 100점을 받은 사례였다. 유일하게 99점을 준 박진영은 "버나드가 이렇게 노래하는 날은 이길 수 없다. 딱 자기 감성이 걸리면 목소리의 울림의 급이 다르다. 동양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울림이다"고 극찬했다.

버나드 박의 이날 무대 영상은 방송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조회 수 100만 건(네이버TV캐스트)을 기록하며 그를 차세대 K-팝 스타로 점치는 편이 많아지고 있다.

가요보다는 팝에 강하다는 면에서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곡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달 2일 톱 10 결정 오디션에서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로 가요에 도전한 그는 양현석에게 "목소리 톤이 정상 무겁다. 좀 가벼워진다면 톱 3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조언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맑은 쇳소리 가진 권진아

놀라운 성장세··우승 후보로 급부상 신선한 변화가 승부의 열쇠 작용할 듯

권진아(18)의 존재감은 톱 8 진출 경연 무대가 펼쳐진 지난달 2일 드러났다. 당시 프라이머리의 '씨스루'를 권진아 특유의 기타 선율과 미디엄템포로 편곡한 그는 세 명의 심사위원을 들썩이게 했고 방송 후 이틀 만에 권진아의 경연 영상은 200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네이버TV캐스트·유튜브)했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을 통해 공개된 음원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권진아는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권진아의 가장 큰 매력은 새벽에 감성을 깨울 수 있을 정도의 맑은 쇳소리다. 팝뿐 아니라 팝-가요 등 모든 장르를 '권진아화' 하는 매력을 지녔다.

'씨스루' 부터 눈에 띄게 성장한 권진아에게도 극복해야 할 점이 있다. 어쿠스틱한 감성이 장점이자 단점이며 이 때문에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톱 10 결정 배틀오디션(2월)에서 태양의 '아이 니드 어 걸'을 기타 연주와 함께 선보인 그는 박진영으로부터 "슬픈 건 잘하는데 기쁜 노래를 잘 못한다. 이 노래는 아기자기한 면과 장난스러운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가사와 노래가 안 맞는다"며 혹평을 듣기도 했다.

■ 타고난 그루브 샘 김

'춤추는 기타' 애칭… 랩도 수준급 잦은 실수 걸림돌로 여유 가져야

톱 3 막내 샘 김(16)은 '춤추는 기타'라는 애칭과 함께 천재 기타 소년으로 불린다. 샘 김은 지난해 12월 본선 1라운드 경연에서 에이모스 리의 '스위트 피'와 게이브 본독의 '스트롱걸 텐'을 선보였고 양현석은 "톱 3 후보로 점치겠다. 한순간도 몸을 가만히 둔 적 없다"며 그의 첫 무대와 기타 실력에 감탄했다.

래핑도 수준급이다. 라디의 '하임 인 러브'와 지드래곤의 '그XX'로 랩을 시도해 시청자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타 없이 노래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 장르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무대 위 잦은 실수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샘 김은 생방송 오디션에서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을 긴장한 탓에 가사 실수를 했고 같은 날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서도 엘린 스톤의 '더 베드 아이 메이드'를 불안한 박자로 소화해 혹평받았다. 최근 톱 4 생방송 무대에서도 벤어킴의 '스탠드 바이 미'를 부르며 기성 처리에 아쉬움을 남겼다.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장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 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 1555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 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ok

5월 품절남녀 줄잇는다

박진희·이선호·조은지·조승제 잇단 결혼

오는 5월 연예계가 핑크빛으로 물들 예정이다.

배우 박진희와 이선호 조은지 개그맨 조승제 등의 결혼 소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박진희는 5월 국내 유명 로펌에서 근무 중인 다섯 살 연하 변호사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양가 부모의 상견례를 모두 마치고 결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 역시 17일 정동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동갑내기 일반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선호의 예비 신부는 패션업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지는 소속사 대표와 5년 열애 끝에 부부가 된다. 그는 오는 24일 나인트리컨벤션 광화문에서 프레인 TPC의 박정민 대표와 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2006년 배우와 매니저로 만나 2009년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코미디에 빠지다'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조승제는 4일 유부남이 된다. 조승제의 예비 신부는 6년 연하의 일반인으로 네일숍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인 어른의 소개로 네 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현기자 lang@metroseoul.co.kr

이선호

조은지

박진희

폴 매카트니 아웃 데어 투어

폴 매카트니 5월 첫 내한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가 처음으로 내한공연을 연다.

현대카드는 5월 2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폴 매카트니 내한공연'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23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아웃 데어'를 진행하고 있는 매카트니는 이번 공연에서 지난해 발표한 새 앨범 '뉴'의 수록곡은 물론 비틀스 시절의 히트곡 등 50년 음악 인생을 들어볼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매카트니는 존 레넌과 함께 '예스터데이' '렛 잇 비' '헤이 주드' 등의 대표곡을 만들며 비틀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비틀스 해체 이후 밴드 '윙스'를 결성했고 이후에는 솔로로 활동하며 음악 영역을 확장했다.

그가 작곡한 노래 중 32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정규앨범과 싱글은 각각 10억 장 이상 팔렸다. 그는 BBC가 뽑은 '밀레니엄 최고의 작곡가'로 선정되고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다. 대중음악계 최고 뮤지션에게 수여하는 '거슈윈상'을 영국인 최초로 수상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사 작위와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올해 '브리티시 인베이젼(British Invasion) 비틀스의 미국 진출' 50주년을 기념해 미국 그래미상 무대에 섰던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공연에서는 2시간 40분에 걸쳐 31곡의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올여름 영국 밴드 퀸이 첫 내한공연을 결정한 데 이어 폴 매카트니의 내한 소식도 이어지며 음악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윤순호기자 suno@

"소리의 감동 들려드릴게요"

싱어송라이터 정준일 6월 단독콘서트

싱어송라이터 정준일(사진)이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찾는다.

지난 1월 정규 2집을 발매한 정준일은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준일은 그동안 기타 건반 밴드만으로 소박하게 공연을 꾸며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4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정규 2집 수록곡 이외에 메이트로 발표했던 곡들까지 전곡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정규앨범의 수록곡은 그동안 다른 무대에서는 쉽게 들어볼 수 없었다. 정준일은 "앨범의 퀄리티를 그대로 라이브로 들려드리기 위해 이번 콘서트까지 아껴왔다. 무엇보다도 소리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며 공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 이외에 안니모 모리코네 내한공연을 세 번이나 연출했던 스태프가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다기자 yiw@

제시카·크리스탈 '자매'

美 나일론편집장과 화보

소녀시대 제시카(오른쪽 사진)와 에프엑스 크리스탈(왼쪽) 자매가 패션 매거진 나일론 미국 편집장이자 유명 포토그래퍼인 마빈 스콧 자렛과 만난다.

제시카와 크리스탈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이번주 마빈 스콧 자렛과 함께 색다른 매력이 담긴 화보를 진행한다.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매거진의 디렉터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셔니스타 자매의 만남으로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시카와 크리스탈은 다양한 화보는 물론 공항 패션, 일상 스타일 등을 통해 뛰어난 패션 감각을 선보이며 패셔니스타 자매로 손꼽히고 있다.

소녀시대 제시카는 미스터미스터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시작하는 일본 아레나투어를 준비 중이다. 크리스탈은 드라마와 광고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수현 '어벤저스2' 출연… 보아 美 스크린 데뷔작 '메이크 유어 무브' 17일 개봉… 최민식 '루시' 예고편 공개

스타들 할리우드 진출 러시 계속된다

수현

보아·수현·이병헌·최민식 등 국내 스타들의 할리우드 출연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 영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할리우드 제작사들의 국내 촬영과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한 가운데 이와 더불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국내 스타들의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식은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인 뤽 베송 감독의 신작 '루시'로 해외에 첫 진출한다. '루시'는 스칼렛 요한슨·모건 프리먼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한 SF 장르물로 최민식은 루시(스칼렛 요한슨)를 추격하는 마약 조직의 중간보스 미스터 장 역할을 맡았다. 3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루시'의 첫 번째 공식 트레일러에서 최민식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보아는 17일 한·미 동시 개봉 예정인 '메이크 유어 무브'로 할리우드에 데뷔한다. '메이크 유어 무브'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 도니(데릭 허프)와 아야(보아)가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보아는 함께 연기한 데릭 허프·윌 윤 리·웨슬리 조너선과 함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프리미어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현은 현재 서울에서 촬영 중인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천재 과학자 역으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원 역시 할리우드 최대 에이전시 UTA와 계약하고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메이크 유어 무브' 속 보아

루시' 예고편 속 최민식

이미 할리우드에 진출한 국내 스타들도 속속 차기작을 결정짓고 세계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넓힐 준비를 하는 중이다.

영화 '지.아이.조' 시리즈로 월드스타로 떠오른 이병헌은 내년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5' 출연을 확정 지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사이보그 터미네이터로 출연하고, 영화 '토르'의 앨런 테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작품에서 이병헌은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다.

또 영화 '닌자 어쌔신'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비는 브라이언 밀러 감독의 신작 '더 프린스' 촬영을 마쳤으며, 배두나는 워쇼스키 남매의 '클라우드 아틀라스'로 할리우드에 데뷔한 데 이어 이들의 신작인 '주피터 어센딩'에도 출연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국내 스타들의 할리우드 영화 출연이 늘고 있는 까닭은 한국의 영화 시장이 할리우드도 무시 못 할 세계 5위권의 영화 시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비록 인구 수는 적지만 한 해 관객 2억 명에 '아바타' '겨울왕국' 등 1000만 외화가 등장한 한국을 할리우드는 눈여겨보고 있다. 여기에 한류스타로 사랑받는 배우들의 아시아에서의 큰 영향력, 뛰어난 영어 실력이 맞물려 할리우드 진출을 앞당기고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 시장에 주목하면서 자연히 한국 영화인들에게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한국 감독과 배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런 분위기에 발 맞춰 한국 스타들도 할리우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진출은 앞으로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카지노딜러' 백진희

'트라이앵글' 캐스팅

배우 백진희(사진)가 '기황후'에 이어 다시 한 번 MBC 월화드라마를 책임지게 됐다.

MBC는 2일 백진희가 새 월화극 '트라이앵글'에 카지노딜러 오정희 역으로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공부의 끝로 나오는 오정희는 부모님을 대신해 네 명의 동생을 돌보는 가장으로 밖에서 볼 땐 어둡고 우울하지만 밝고 긍정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이다.

백진희는 "'기황후'에 이어 '트라이앵글'로 시청자들과 다시 만나게 됐다"며 "다양한 매력을 가진 오정희를 100%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기황후' 후속으로 다음달 첫 방송 예정인 '트라이앵글'은 부모를 잃은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져 20여 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 다시 만나 형제의 연을 맺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삼형제는 이범수·김재중·임시완이 맡았으며 이들의 연인으로 오연수와 백진희가 캐스팅돼 연기 호흡을 선보인다. /김지현기자 ganyfoem@

'빅맨', '닥터 이방인'과 정면대결

첫 방송 28일로 연기

KBS2 새 월화극 '빅맨'이 첫 방송일을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앞서 '빅맨'은 '태양은 가득히' 의 후속작으로 오는 14일 첫 방송을 예고했으나 방영이 2주나 미뤄져 경쟁작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28일 첫 방송)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빅맨' 측 관계자는 3일 메트로신문에 "대본이 정말 잘 나와서 자신있다. 작품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태양은 가득히'는 오는 8일 16부작을 끝으로 종영하고 KBS는 '빅맨' 방송 전까지 4부작 드라마를 편성할 계획이지만 4일 편성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작품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빅맨'은 강지환·이다희·최다니엘·정소민 외 한상진·차화연·송옥숙·권해효 등 묵직한 존재감을 지닌 배우들이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고아로 태어나 밑바닥 인생을 살던 한 남자(강지환)가 재벌 그룹의 장남이라는 새 삶을 얻으면서 권력과 부조리에 맞서는 내용을 짜릿하게 그릴 전망이다. /한준호기자 joonho@

KBS2 '빅맨' 티저 캡처

전현무 "KBS 월드컵 중계 캐스터 제안 거절"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 중인 전현무(사진) KBS전아나운서가 월드컵 중계 캐스터 영입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3일 오후 1시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현무는 "(캐스터) 제의받은 것도 사실이고 고사한 것도 사실이다"며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뜻밖의 제안이라 당황했다. 하지만 지사 아나운서와 공정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테스트를 받았다"며 "하지만 막상 시험을 보니 캐스터가 참 어려웠다. MC와는 차이가 있다. 테스트 후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서 힘들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전현무는 "테스트 당시 '저기 공격수 두 명'이라고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기 공격수 두 분'이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현무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이하 '로디볼')에서 박지윤과 함께 진행을 맡았다.

'로디볼'은 전현무와 박지윤의 진행 아래 김지윤 좋은연애연구소장, 배우 라미란·이창훈, 가수 레이디 제인·주니엘, 개그맨 조세호, 프로게이머 홍진호, 연애 컨설턴트 송창민 등 총 10명의 MC들이 '로맨틱 마스터'로 변신해 연애 상담에 나선다.

'로디볼'의 첫 번째 코너 '연애 잇수다'는 사전 접수된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코너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사연을 두고 MC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지현기자

손흥민 친정 또 울리나

내일 함부르크전 출격… 침체된 팀 분위기 반전 노려

손세이셔널 손흥민(22 바이엘 레버쿠젠·사진)이 친정팀 함부르크 SV와 맞대결에 나선다.

손흥민은 오는 5일 독일 함부르크 임테크아레나에서 열리는 레버쿠젠과 함부르크의 2013~2014시즌 분데스리가 29라운드 경기 출격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손흥민이 맞붙는 함부르크는 손흥민을 분데스리가 대표 스트라이커로 성장시킨 친정팀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2~2013시즌 리그 득점 랭킹 9위에 해당하는 12골을 몰아치고 올 시즌 이적 후 지난 12라운드 함부르크와의 첫 대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으로 분데스리가가 주목하는 선수가 됐다.

올 시즌 후반기 자신을 키워준 팀과 다시 맞붙게 된 손흥민은 그 어떤 경기보다 남다른 각오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소속팀 레버쿠젠이 최근 좀처럼 승리를 얻지 못하며 리그 2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5위인 VfL볼프스부르크와도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한 상황이다.

침체된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손흥민의 활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바로 손흥민 승리 공식 때문이다.

레버쿠젠은 최근 리그 9경기에서 2승2무5패의 부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승리를 거둔 2경기에서 모두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또 손흥민은 지난 FC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환상적인 우각도 슛을 성공시키며 두 달가량 지속된 팀의 무승 행진을 끊었다. 손흥민 경기는 채널 '더 엠'을 통해 생중계한다.

한편 이번 29라운드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지동원과 홍정호의 아우크스부르크와 역대 최단기간 분데스리가 우승을 자지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5일 오후 10시30분에 채널 '더 엠'에서 생중계되며, 구자철과 박주호의 FSV 마인츠와 SG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가 같은 시각 채널 '원'에서 생중계된다. /유순호기자 ysa@metroseoul.co.kr

2013~2014 프로배구리그 통합 우승한 삼성화재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꺾고 통합우승을 결정지었다. /연합뉴스

삼성화재,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첫 7연패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첫 7연패라는 새 역사를 썼다.

삼성화재는 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0(25-18 25-22 25-22)으로 이겼다.

1차전 패배 후 내리 3경기를 따내며 통합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2007~2008시즌부터 7년 연속 챔피언이 됐다.

여자농구 안산 신한은행(2007년 겨울리그~2011~2012시즌)과 나란히 6연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우승으로 국내 프로 스포츠 최다 연승 기록은 갈아 치웠다.

또 2005년 출범해 10번째 시즌을 맞은 남자 프로배구에서 8번이나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삼성화재는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고 갔고, 삼성화재의 쿠바 특급 레안드로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양팀 최다인 30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1차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외국인 공격수 리베르만 아가메즈(콜롬비아)가 14득점에 그치는 부진 속에 우승을 내줘야 했다. 아가메즈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삼성화재 박철우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문성민이 19점으로 분전했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박찬현기자 rock427@

프로배구 전적 3일

현대캐피탈	0	3	삼성화재

호날두 14호골 … 시즌 최다득점 타이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포효하고 있다. 호날두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4골을 터뜨려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을 이뤘다. 레알 마드리드는 3-0으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추신수 이번엔 끝내기 볼넷

텍사스 9회말 뒤집기

출루 머신 추신수(32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틀 연속 텍사스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와 필리스의 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3-3으로 맞선 9회말 1사 만루에서 추신수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 텍사스는 4-3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경기에서 9회 볼넷으로 출루해 결승점의 주인공이 됐던 추신수가 이틀 연속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카일 켄드릭(30)을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는 깨끗한 안타로 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 6회말에는 유격수 플라이로 아웃됐다. 그러나 마지막 타석에서 추신수의 능력이 발휘됐다.

9회말 3-3 동점 상황에서 타석에 오른 추신수는 1사 만루 찬스에서 투수 존 파펠본과 풀카운트 접전 끝에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대역전극을 마무리했다. 이날 5타석 4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73을 기록하게 됐다. /유순호기자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9회말 끝내기 밀어내기로 승리 타점을 올린 뒤 팀 동료들로부터 격하게 축하를 받고 있다. /USA투데이 연합뉴스

'에이스' 류현진 내일 홈 개막전 선발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 류현진(27)이 홈 개막전 선발로 확정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 류현진이 5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투수로 등판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도 LA타임스와 ESPN과의 인터뷰에서 "5일 선발은 류현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규시즌 6경기 중 3차례 선발로 등판한 것은 물론, 호주 개막시리즈 본토 개막전·홈 개막전 등 대형 이벤트성 경기에 나서며 팀 내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전에 5차례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2.43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평균 피안타율(0.252)보다 월등히 높은 피안타율(0.272)로 매번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특히 헌터 펜스(31)는 류현진과의 대결에서 14타수 6안타(0.429), 2루타 2개, 5타점으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왼쪽 파간(6타수 4안타, 타율 0.667), 파블로 산도발(13타수 4안타, 타율 0.308)도 껄끄러운 상대다.

샌프란시스코 선발은 오른손 베테랑 라이언 보겔송(37)이다. 2011년(13승7패, 평균자책점 2.71)과 2012년(14승9패, 3.37)에는 샌프란시스코 에이스 역할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4승6패, 평균자책점 5.73으로 부진했다. /유순호기자 sun@

프로야구 전적 3일

■ 잠실

SK	000	233	001	9
LG	300	001	100	5

■ 목동

두산	000	301	000	4
넥센	020	002	11X	6

■ 광주

NC	051	300	000	9
KIA	030	000	000	3

프로농구 전적 3일

LG	21	15	20	22	78
모비스	22	12	22	16	72